익산시, 농촌지도사업 현장평가회

우수성과 공유 · 농업 신기술 보급 확대로 농업경쟁력 견인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의 우수성과 공유와 농업신기술 보급을 위한 '2023년 농촌지도사업 현장평가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의 우수성과 공유와 농업신기술 보급을 위한 '2023년 농촌지도사업 현장평가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농업인교육관 및 농촌지도사업 현지 시범사업장에서 열린 이번평가회는 시범사업농가, 농업인단체회원, 청년농업인,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 비롯한 익산시의원 등 10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센터는 식량작물, 원예작물, 치유농업 분야 시범사업 우수성과와 사례를 확대시키고 사업시범요인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자 이번 평가회를 마련했다.

특히 치유농업 현장평가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시의원들의 관심 속에서 현장행정이 이루어졌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최근 농업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가루미 쌀인 바로미2 고품질 생산체계 시범사업과 딸기 우량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 딸기원묘 생산시설 사업의 추진사례로 발표됐다.

가루미 쌀인 바로미2 고품질 생산체계시범사업의 경우 밀후작으로 바로미2 품종을 재배함으로 기존 관행 이모작보다 133%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되며, 익산시 딸기농가(238농가/188ha)에 조직배양 무병묘 보급을 목적으로 구축한 딸기 원묘 생산기반 사업은 병해충 발생감소와 생산량(20%)이 증가되어 소득 향상을 도모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와 함께 쌀 · 고구마 · 딸기 · 콩을 활용한 디저트 개발품 시식등 주요 전략작목에 평가와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치유농업 현장평가회를 가진 금마 플로리움 대표 이옥순은 야생화라는 농업자원을 치유와 접목시켜 새로운 농업소득원으로 개척한 의지와 전국 치유농장의 롤모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 평가회 참석자에게 도전정신을 일깨웠으며 높은 호응의 박수를 받았다.

센터는 올해 청년농업인 드론지원, 특산지원융복합 기술지원,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시범,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시범사업 등 80여개 시범사업을 통해 과학영농기술을 보급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지도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한 꿈꾸는 스튜디오(라이브커머스 방송실) 운영을 통한 농산물 온라인판매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통한 가공창업 활성화,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서비스도 병행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충영 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기상 여건에도 영농현장에서 땀 흘려 노력해 주신 농업인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평가회를 통해 소개되는 우수성과는 신속히 현장에서 파급 실천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류숙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농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으로 소통·변화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추석 연휴 익산여행 떠나요"

보석만들기 체험 · 야간문화 콘텐츠 등 프로그램 풍성

익산시는 추석명절 황금연휴를 맞아 익산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관광지와 연계된 특별한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황금연휴에 이색적인 관광지를 찾고 있다면 교도소세트장이 최적의 관광지다. 익산교도소세트장은 추석에 방문할 관광객을 위해 '교도소 세트장 추억놀이터'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다.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준비된 행사는 딱지치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와 연만들기, 가래떡굽기, 달고나 등 만들기 체험, 추억의 교실 포토존 등이다.

아울러 보석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추석맞이 체험행사는 주얼리아카데미의 보석체험, 고무신화분 만들기와 같은 특별체험과 SNS인증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석맞이 체험행사는 28일부터 30일까지 휴관없이 진행된다. 보석박물관 광장에서 10월 2일 대체휴일 오후 다섯시부터 '대체불가쇼'와 함께 버블쇼, 마술쇼, 트로트공연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미디어아트 페스타가 진행 중인 미륵사지를 야간에 방문한다면 특별한 재미를 더 할 수 있다. 국립익산박물관(추석 당일 휴관)도 야간 개장해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백제왕궁박물관 역시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방해 익산을 찾는 이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관광안내소는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정기해설시간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와 흥미로운 백제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고, 서동공원에서는 '백제행렬도' 등 다양한 유등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명절 연휴를 활용해 흥미 만점 익산 관광지를 찾는다면 후회 없는 황금연휴 여행이 될 것"이라며 "특히 호텔 연계 프로모션 '익산이조'까지 활용해 숙박 요금 할인까지 받는다면 금상첨화 익산 여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사협, '다이로운 우체부'로 주민 소통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헌율, 김영주)는 가족 유대강화와 정서 회복을 위해 주민 소통창구 역할을 할 '다이로운 우체부' 사업을 운영한다.

자신의 마음을 편지로 써 우체통에 보내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답장을 전해주는 '다이로운 우체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쉽게 털어놓기 힘든 마음을 담은 편지를 통해 전하는 건강한 소통문화로 소외된 지역민들의 고독감과 위기감을 개선하고 심리 ·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해 건강하고 성숙한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익산역,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등 총 3곳에 설치된다(多)이로운 우체통에 고민이나 사연을 적어 보내면 공감의 답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분야 전문가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 상담지원 등의 대안도 찾아주며 감동 사연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추석 연휴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군산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 교통, 수도, 하수, 청소, 보건, 환경, 식품 등 8개 분야 6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 근무반을 특별 편성한다. 이에 따라 긴급 도로 보수,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단속, 긴급 상 · 하수도 보수, 쓰레기 처리, 응급진료 상황실 운영 등을 실시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반전화 120, 핸드폰 063-120으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연휴기간 동안 운영하는 병 · 의원, 보건진료소, 약국, 음식점 등 생활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에도 시청 당직실에서 120생활민원을 계속 접수받아 도로, 상 · 하수도, 교통, 청소 등의 긴급 생활민원에 대해 계속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고향을 찾은 귀성객,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연휴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아파트 건설 투명한 현장 공개로 불안감 해소

익산시, 천장 누수 발생 아파트 공사 현장 안전 점검 결과 "구조적 문제 없다" 결론

익산시는 최근 천장 누수가 발생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해 구조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 8일부터 안전 진단 전문업체 (주)제이엔케이안전진단연구원에 의뢰해 천장 누수 문제가 발생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전체 동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교차 검증 차원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도 해당 층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양 기관 모두 "구조적 균열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안전 진단 전문업체는 해당 동에 대한 △외관 조사 △슬래브 처짐 조사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 △철근 배근 상태 점검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결과 구조적 결함이 아닌 콘크리트 양생 중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라고 판단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역시 누수가 발생한 균열 부분은 철근 부족 등에 의한 구조적 균열이 아니고,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시에 통보했다.

시는 건설 업체 측에 점검 결과에 따른 시공관리와 해당 균열에 대한 보수를 지시할 계획이다. 또 해당 현장을 특별 관리 단지로 지정해 수시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 가능한 공동주택 시공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투명한 현장 공개를 통해 시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한 시공을 유도해 입주예정자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주택법은 입주일 45일 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전북도 품질점검단 점검을 실시한 뒤 사용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를 보완해 '입주예정자 현장 방문의 날'을 추진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전 기간 입주예정자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총 10여 차례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보건소,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 약국 지정

군산시보건소는 추석 연휴기간(9월 28일~10월 3일) 중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공백 예방을 위한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을 포함해, 병 · 의원 66개소, 치과의원 8개소, 한의원 13개소, 약국 74개소, 보건기관 26개소가 신청한 일자별로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협회의 사전 신청을 통해 문 여는 병 · 의원, 약국을 지정했으며 연휴기간 중 진료에 대한 사항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 군산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의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 여는 병 · 의원 및 약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정에 의해 일부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운영여부를 유선 확인 후 방문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추석 명절 대비 상수도 비상근무체제 돌입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즐기실 수 있도록 추석 명절 대비 특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 누수, 급수불출 등 각종 생활민원에 즉각 조치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상수도과는 상시 근무하고 상수도 대행업체(12업체)를 지정해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강화한다.

상수도 관련 불편사항과 각종 신고는 상수도과(063-859-4411)로 신고하면 비상 조치 받을 수 있다. 응급복구로 인한 단수 발생시 단수 예정구역에 대해 안내방송 등을 통해 예기치 못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추석 연휴, 레트로 힐링 여행지 군산으로

원도심에서 시간여행 금강 하구의 생태체험

근대역사박물관 등 볼거리 · 즐길거리 가득

금강미래체험관서 금강 하구 경관 감상

금강습지생태공원 숨겨진 힐링 명소로

고군산군도에서 지질 명소 탐방도

근대역사박물관

금강미래체험관 야외공원

금강습지생태공원

고군산군도

10월 추석 연휴, 근대문화유산이 가득한 원도심에서의 시간여행은 물론이고,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금강하구의 독특한 생태체험, 천혜의 자연경관에 지질 명소 탐방까지, 테마별로 즐길거리가 가득한 시간여행의 도시 군산으로 떠나보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일제강점기 군산의 생활상과 일제에 항거한 우리민족의 열정의 흔적을 보여주는 국내 대표 근대사 박물관으로, 근대문화도시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명소다.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는 박물관 일원에서 명절 한마당 행사가 펼쳐져 전시 관람 외에도 각종 공연과 체험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특히, 연휴 기간중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포함해 근대미술관, 근대건축관,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 군산 3.1운동100주년기념관, 채만식 문학관, 금강미래체험관까지 전시관을 무료 개방된다.

말랭이마을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1950년대 피난민들이 터를 잡고 정착하면서 본격적인 마을이 형성됐으며, 근대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근대 생활상을 재현한 벽화들과 전시관, 예술인 레지던스 공간 등이 조성됐다.

주민들과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말랭이마을 골목전시와 주말에 운영되는 막걸리 양조 체험 등이 인기를 모으며 시간여행마을의 새로운 레트로 추억여행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금강하구에 위치한 금강미래체험관은 금강의 문화, 생태,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전시 및 체험시설이다.

2022년 새롭게 리모델링한 전시관에서는 금강과 서해바다가 만나는 군산의 독특한 생태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천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금강 하구의 경관 감상과 야외 조경공원에서의 생태 탐사와 산책도 놓치지 말아야 할 금강미래체험관의 관람 포인트로 추천한다.

또, 금강미래체험관의 맞은편에 위치한 금강습지생태공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군산의 힐링명소다.

군산에 왔다면 아름다운 섬의 군락 고군산군도를 놓치지 말자.

고군산군도의 초입에 위치한 신시도에 들러 정겨운 어촌마을의 일상을 담은 벽화들 사이로 한가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고군산군도는 고대부터 형성된 독특한 지질구조의 기암괴석들이 가득해 올해 6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특히, 매년 테마가 있는 문화축제로 올해 11년째를 맞은 군산시간여행축제는 6일부터 '군산시간여행, 100년의 미(味)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시간여행마을 거리 곳곳에서 근대먹방 300, 스트릿마당, 군산대한독립만세, 모아모아 시간, 근대패션쇼, 군산공룡대탐험 등 48개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7일과 8일에는 시간여행축제장인근 군산짬뽕특화거리에서 '군산짬뽕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한층 풍성한 군산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곤 기자